

##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과기부 부총리 모두발언(4.9)

- 지난 3월 통신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0.6% 상승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(소비자물가지수 약 2.2% 상승)하였으며, 면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
- 과기정통부는 통신데이터 이용이 필수적인 AI·디지털 시대에 맞춰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
- 작년부터 통신3사와 데이터 중심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협의해 왔으며,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으로 요금제 개편 계획을 확정함
  - ① 요금 인상 없이 통신3사의 LTE·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(QoS) 포함 ※ 현재 LTE 저가 구간(3만원대 이하)에 QoS 미제공
  - ② 어르신(만 65세 이상)에게는 음성·문자 제공량을 확대하여 보다 두터운 기본통신권 보장
  - ③ LTE·5G 요금제를 통합·간소화하고 신청이 아닌 자동으로 연령별 혜택 제공
- 아울러, 요금제 개편과 함께 최적요금제 고지제도(전기통신사업법 개정완료, '26.10월 시행)를 도입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임
- 이와 같은 개편이 이루어지면 데이터 안심옵션 혜택을 약 717만 이용자가, 음성·문자 추가제공 혜택을 약 140만 어르신 이용자('26.1월, 회선 기준)가 받게 됨
- 중동 전쟁 상황에 따른 물가 상승 국면에서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
  - 이를 위해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요금제 개편에 따른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, 통신3사와 요금제 개편 절차(약관개정, 전산시스템 전면개편 등)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 할 것임

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 
교육부 차관 모두발언(4.9)

- 교육부는 학원비로 인한  
가계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 
학원비 물가관리를 위해  
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난 1월부터  
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 
실시하고 있습니다.
- 2026년 4월 현재('26.4.6.기준)  
학원 및 교습소 15,925 개소를 점검하여  
교습비 관련 596건 등 2,394건을 적발하고,  
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 3,212건을 처분하였습니다.
- 그 결과 '26년 학원 교습비는  
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 
※ '26년 3월, 전년 동월대비 “소비자 물가” 상승률 2.2%  
“학원비 물가” 상승률 1.9%

-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 
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·단속하고,  
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 
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
□ 학원비 물가 관리강화를 위한  
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학원비 초과징수 등  
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 
과징금을 신설하겠습니다.

- 아울러 신고포상금과 과태료 인상을 통해  
민간 감시를 활성화하고,  
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.

□ 교육부는 앞으로도  
국민들께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 
체감하실 수 있도록  
최선을 다하겠습니다.